

#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1차)

##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12. 30.(수) 16:00 ~ 18:00
- 장 소 : 비대면 회의 진행
- 참 석 : 위원 9명 중 9명 참석
  - 참석위원
    - 외부위원 : 박익수 위원, 오영상 위원, 박성원 위원
    - 학교대표 : 정효지 학생처장, 강준호 기획처장, 김용철 재정전략실장
    - 학생대표 : 김지은 2021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하규원 대학행정 자치연구위원회 위원, 반주리 대학원 총학생회 전문위원

## 2. 회의 내용

- 안건 설명
  -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 회의 내용
  - < 회의 개최 >
  - 위원 소개 및 인사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관련
    - 간 사 : 위원이 전체적으로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학교대표 : 통상적으로 협의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하였고, 학생 측과 학교 측 추천위원회에서 번갈아 부위원장직을 해오셨으므로 박익수 위원께서 위원장, 오영상 위원께서 부위원장을 하시면 좋겠음
  - < 위원들 만장일치로 박익수 위원이 위원장, 오영상 위원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함 >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 합의사항 :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사항은 해당 사실을 위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기로 함

○ 2021년도 등록금 책정(안) 관련

< 간사 회의자료 설명 >

- 외부위원 : 등록금과 학교의 발전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 학교대표 : 등록금 인상이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임.
- 간 사 : 2009년도부터 시작된 등록금 동결 및 인하조치에 따라 학교 재정상의 어려움은 상당하였으나 국고출연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보완 하였음.
- 학생대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안)이 적절한 것인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람.
- 학교대표 :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임.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건은 학생들이 속한 소득분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의미의 동결이라 함은 최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됨. 향후 학부수업료 인상으로 인한 수업료 수입 증가액 이상을 교내 장학금으로 편성할 예정임.
- 학생대표 :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국가장학금 II 유형의 손실 및 학부수업료 수입 증가액 이상을 교내 장학금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손실 액과 증가액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
- 학교대표 : 2021년도에 한해서 일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2022학년도부터는 수업료 증가에 따른 교내장학금과 국가 장학금 II 유형 모두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학생대표 :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을 감안해 주시기 바람.
- 학교대표 : 등록금 인상분만큼은 좀 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음.

- 학생대표 : 대학원 수업료 인상과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람.
- 학교대표 : 수업료 수입 증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대학원 장학금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임.
- 학생대표 : 대학원생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활용계획 자료를 추가로 요청함.
- 외부위원 : 등록금 인상분을 전액 장학금으로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애초에 학교 측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인건비 충당이나 적자 해소와는 모순이 되는 것 아닌지?
- 학교대표 : 2021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비용 또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완하는 효과가 있음.
- 학교대표 : 대학원 수업료 인상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람.
- 학생대표 : 대학원 입학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람.
- 학교대표 : 고졸자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반면 대졸자의 약 7%만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어 보편화된 학부 과정과는 다름.
- 학생대표 : 매년 같은 사유로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 유감임. 무엇보다 대학원 입학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함
- 간 사 : 회계원칙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하나의 세입으로 처리 되고, 지출 또한 하나의 세출로 처리되고 있음. 따라서 입학금 세입만을 별도로 추적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함. 대학원 입학금은 학생 입학과 동시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에 대한 충당을 위하여 관례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음. 대학원 입학금과 수업료를 종합하여 등록금의 전체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 학생대표 : 대학원 입학금은 이미 지난회의에서부터 논의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대학원 입학금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외부위원 : 전체 회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학원 입학금 약 8억원에 대하여 대학원생들이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한 자료는 제출 가능한지?
- 학교대표 : 요청하신 자료는 작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회계원칙에 따라 모든 세입과 세출은 하나의 구조로써 각각 처리되고 있고, 세입과 세출이 재원별로 매칭 되는 구조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대표 : 입학금을 대학원생들만 내야한다면 그 입학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대학원생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함.
- 학교대표 : 혜택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말씀하는 것인지 알려주신다면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음. 최근 등록율이 떨어지면서 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대학원생 장학금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학생대표 : 대학원생들이 받는 혜택이 없는 것 같아 여쭙본 것이고, 입학금의 사용용도와 대학원생이 받는 혜택 등을 알려주신다면 학생 측에서도 납득할 수 있을 것임
- 학교대표 : 회계 상 실질적인 매칭이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전제하신다면 자료는 만들어 드릴 수 있음.
- 학생대표 : 대학원 입학금 관련하여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임. 또한 대학원생들을 학문후속세대의 관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대표 : 2021년도 법인회계에서 발전기금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함.
- 학교대표 : 서울대학교와 발전기금은 각기 다른 법인이지만 회계 간 진출입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2021년도 발전기금 지원금이 0원인 사유는 발전기금 투자금 손실에 관한 것으로써 회계상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발전기금에서 서울대학교로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참고로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와는 별도 법인인 관계로 내부 회계자료를 외부에 제출할 의무는 없음.
- 학생대표 :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요청 자료를 최대한 노력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람.

- 학교대표 : 학생 측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노력하여 작성하겠음.
- 학교대표 :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학교가 처해있는 재정상황을 수입과 비용 측면에게 공유해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학생대표 : 추가편성 장학금 규모 등을 봤을 때 기존 장학금에 비해 적은 것 같은데 앞서 언급한 재분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람.
- 학교대표 : 재분배라는 것이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님. 다만 전체 학생 지원 장학금 중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런 상황임.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예산 중 발전기금 재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 부족분을 학교 예산에서 보완해야 함. 따라서 현 시점에서 좀 더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학생대표 :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부담감이 큰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 학생대표 : 등록금 인상(안)에 대하여 재고해 주시기 바람
- 학생대표 : 단과대학별 예산 자료 중 미집행 예산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유가 있는지?
- 학교대표 : 2020회계연도 예산은 단과대학별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어 단과대학에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미집행 예산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움. 2019년도 결산수지보고서는 이미 제출하였음
- 학생대표 : 특별장학금 지급이 가능했던 사유가 단과대학별로 미집행 금액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자료 공개가 가능한지 궁금함.
- 간 사 : 지난번 등록금심의위원회 간담회 자료는 학생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확성을 전제로 만든 자료임. 이에 현장 열람 방식을 취했던 것임. 학생 측 요청자료(단과대학별 미집행 금액)는 이미 소관부서에 작성 요청을 했으나 회계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변동 사항이 많아지는 등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음. 2021년 5월 결산 완료 후에는 결산수지보고서를 통하여 제출 가능함.
- 학생대표 : 학생들의 요청자료를 최대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학교대표 : 소관부서에 요청하여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음.
- 외부위원 : 단과대학별 자료 제공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이라서 제출이 어렵다는 것인지? 애초에 단과대학별로 집계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람.
- 학교대표 : 단과대학별 운영비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는 결산 이후 확인할 수 있으나 학생위원의 요청자료는 현재 회계연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요청하는 자료로써 부정확성을 말씀드린 것임.
- 학교대표 : 본부 차원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 위 원 장 : 마지막으로 오늘 학생위원 측에서 요구한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
- 간 사 : 학생위원 측에서 요구한 자료는 다음과 같음.
  - 대학원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활용계획
  - 대학원 입학금 사용처 확인
  - 발전기금 전입금에 대한 자료 제공
  - 단과대학별 예산집행현황(미집행 내역)
- 학생위원 : 인상(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람.
- 위 원 장 : 2차 회의를 2021년 1월 5일 오후 4시에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함. 이상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칩.

### 3. 결정 사항

□ 차기 회의 개최 : 2021년 1월 5일(화) 16:00

<폐회 : 18:00>

2020. 12. 30.

위 원 장 : 박 익 수 (서명)

학교대표 : 강 준 호 (서명)

학생대표 : 김 지 은 (서명)